

보도시점 2024. 12. 20.(금) 회의 종료 후 별도 공지

내년 외국인력(E-9) 13만명 도입

- 업종별 쿼터 9.8만명, 탄력배정분 3.2만명으로 결정 -

정부는 12.20.(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4.12.20.(금) 15: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 해왔다.

또한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23.9월), 음식점업 등('24.1월) 고용허가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24.1월),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23.9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ceiling)** 개념으로,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쿼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로, 이는 **총 9.8만명**이며 제조업 7.2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이는 **총 3.2만명**이며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은 업종별 쿼터(9.8만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라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서기관	박진영 (044-202-7156)



참고 1 2025년 업종별 외국인력(E-9) 도입인원

< '25년 업종별 E-9 도입인원 (단위: 명) >

총 계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30,000	72,000	2,500	2,000	10,000	8,500	3,000	32,000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참고 2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